

## 대한스포츠의학회 성명서

### 선수의 건강, 강한 대한민국: 스포츠 의학을 통한 국가 경쟁력 강화"

존경하는 체육계 인사 여러분!

우리 대한스포츠의학회는 각종 체육 단체에 의무위원회 설치 및 실제적 운영을 권고합니다.

각 체육 단체는 선수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선수 건강 증진과 경기력 유지 및 향상을 위해서는 훈련 및 경기 활동할 때 의료적 고려가 매우 중요합니다. 이를 위한 기본이 각 단체에 의무위원회 설치입니다. 이를 통해 건강 스크리닝, 팀 주치의, 경기 필드 의료, 응급 전달 체계 등 의료 관련 주요 사항을 결정해야 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의무 위원회가 없거나 형식적인 경우가 다수입니다. 스포츠의학 전문가 모임인 사단법인 대한스포츠의학회는 적어도 대한체육회 및 대한장애인체육회 산하 단체에 실제적 의무위원회 구성을 촉구합니다.

대한체육회 및 대한장애인체육회 산하 단체 의무위원회 구성에 대한 구체적 제안

1982 년 설립되고 2021 년 사단법인으로 전환된 대한스포츠의학회는 대한민국 스포츠의학을 대표하는 단체로, 부상을 진단하고 치료하는 것을 넘어서 질병 예방, 체력 관리, 경기력 향상을 포함한 선수들의 전반적인 건강을 지키는 단체입니다. 대한민국에서는 유일하게 스포츠의학 전문가들을 양성하고 있으며, 현재 여러 분야에서 그 역할을 다하고 있습니다.

대한스포츠의학회는 대한체육회 및 대한장애인체육회 산하 모든 스포츠 단체에 의무위원회의 실제적인 구성을 의무화하고, 선수들의 건강과 안전을 체계적으로 보장할 것을 강력히 권고합니다. 이는 우리나라 스포츠 경쟁력 강화와 선수들의 건강 보호에 필수적입니다.

#### 1. 의무위원회의 필수 구성요소

의무위원회는 스포츠의학 전문의사를 포함하여, 물리치료사, 운동생리학자, 심리학자, 영양사, 트레이너 등으로 구성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각 팀의 의료진 구성도 유사합니다. 하지만 단체 사정에 따라 위원은 조정될 수 있습니다.

이상적인 위원들의 자격과 역할은 다음과 같습니다:

- 스포츠의학 전문의사: 자신의 전문 과목에 더하여 스포츠의학 지식을 습득한 의사로 선수들의 부상 예방, 진단 및 치료를 총괄 담당합니다. 이중 1 명이 위원장을 맡습니다.
- 물리치료사: 국가 공인 물리치료사 자격을 보유하고 스포츠 재활 분야에서 경험이 있는 전문가로서, 물리치료를 담당합니다.
- 운동생리학자: 운동생리학 관련 석사 이상의 학위를 소지하고, 선수들의 체력 관리 및 평가에 대한 경험이 있는 전문가로서, 경기력 향상을 도모합니다.
- 스포츠 심리학자: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혹은 스포츠 심리상담사 자격을 보유하고, 선수들의 정신 건강을 지원할 수 있는 전문가가 필요합니다.
- 영양사: 스포츠 영양학에 대한 전문 지식을 가진 전문가로서, 영양에 대한 컨설팅을 제공합니다.
- 트레이너: 트레이너 자격증을 보유하고, 선수 훈련 및 부상 예방에 대한 지원을 합니다.

## 2. 대한체육회의, 대한장애인체육회 정관 수정 제안

대한스포츠의학회는 각 단체 정관 수정을 제안합니다:

- 대한체육회 회원종목단체 규정 제 37 조: 각종위원회 설치 규정에 의무위원회를 필수 요소로 규정하고, 의무위원회 정관이 위 필수 구성요소를 바탕으로 제정되어야 합니다.
- 대한장애인체육회 정관 제 33 조: 각종위원회 설치 규정에 의무위원회를 필수 요소로

규정하고, 의무위원회 정관이 위 필수 구성요소를 바탕으로 제정되어야 합니다.

- 정기적 평가와 개선: 각 단체는 의무위원회의 운영을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지속적으로 선수들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대한스포츠의학회는 이번 성명을 통해, 스포츠계가 선수들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는 체계를 강화하고, 우리나라가 국제 경쟁력 있는 스포츠 강국으로서 위상을 더욱 높일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우리 선수들이 최상의 환경에서 최고의 실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대한체육회 및 대한장애인체육회 산하 모든 스포츠 단체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촉구합니다.

2024년 9월 6일

사단법인 대한스포츠의학회

회장 양윤준